
쥐덫 속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점진적 유토피아의 종말

호세 나탄손

기자, 정치학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국장

원제와 출처: José Natanson, "Mauricio Macri en su ratonera: El fin de la utopía gradualista",
Nueva Sociedad, No. 276, julio-agosto de 2018, pp. 24-33.

핵심어: 위기, 달러, 신자유주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중 급진주의자도, 페론주의자도 아닌 최초의 대통령이다. 또한 그는, 강한 반국가주의(antiestatismo)를 제안하지 않지는 않지만,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작용, 정부의 규제완화, 경제 개방의 장점을 옹호하는, 명백히 시장친화적인 세력의 선두에서 집권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¹⁾ 아르헨티나는 여러 번에 걸친 억압과 독재정권을 견뎌내고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광범위한 복지국가를

1) Gabriel Vommaro: *La larga marcha de Cambiemos. La construcción silenciosa de un proyecto de poder*,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17.

일구어낸 제 세대에서 일구어낸 서민의 동력과 강력한 평등주의적 기억을 보유한 국가다. 그런 아르헨티나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시장친화적인 특징을 보유한 정당이 대통령직에 오른 것이다.

2015년 12월 정부 출범 이후, 마크리의 공화주의제안당(PRO)과 백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급진당(UCR)이 연합한 ‘바꾸자(Cambiamos)’의 경영방침은 명백한 신자유주의 경제 계획을 진전시키려는 대통령 및 그의 주된 협력자들의 의지와 정치적·사회적·노동운동의 저항 사이에서 소신과 실용주의를 오락가락했다. 페론주의가 분열된 상황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거리를 점령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었다. 그 결과, 마크리가 경영한 첫 2년은 집중적인 사회적 결집의 주기로 규정되었다. 특히 교육자, 사회운동가, 공무원, 과학자, 여성들이 무수한 일련의 행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세력을 부각시켰다. 노동조합 결성비율이 37%인²⁾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노조가 소득 분배를 놓고 기업가 및 정부와 다투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 하락을 피할 수 없었고, 특히 노동법을 유연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천성과 그에 반하는 제약 간의 긴장을 ‘점진주의(gradualismo)’³⁾로 정의하였고, 이 긴장은 경제정책에 반영되었다. 실제로 마크리는 초기에 일련의 쇼크 요법을 실시했다. 그는 키르츠네츠주의에 의해 제정된 복잡한 외환관리 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였고 몇몇 분야, 특히 정치적으로 결탁한 분야들에서 규제 완화를 진척시켰다.(가령, 전기통

2) Antonio Mangione: «Sindicalización e igualdad» en *Contexto*, 12/6/2016.

3) 점진주의(gradualismo)는 19세기 생물학에서 진화방식을 논할 때 사용된 용어인데 경제학자 마샬은 이를 경제학에 적용해 경제적 변화는, 미시적인 것이 변화하면서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할 때 사용하였다. - 옮긴이

신 분야에서는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ín)⁴⁾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안을 채택하였다.)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또 다른 공약이었던 수출세 원천 징수액을 낮추거나 없앴고, 벌처펀드가 청구한 채무의 전액 상환을 통해 재정적 정상화를 신속하게 그리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진전시켰다. 그동안 대외정책은 일련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간의 FTA 체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⁵⁾, 서구 열강들과의 우호적 관계 수립, 그리고 여전히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OECD 가입에 대한 열망으로 선회하였다. 동시에, 이전 정부 때 국유화된 은퇴제도를 공적 규제 하에 계속 유지 중이며, 국유화된 기업들(석유가스공사(YPF)와 아르헨티나 항공)을 재민영화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계획을 줄이고 통폐합하기는 하였으나 공공지출의 삭감을 90년대식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은 것이다.

정부의 계획 중 이런 자유화 조치 전반은 규제,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은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량의 투자,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를 달성함으로써 또 다시 성장의 주기가 시작될 것이고, 포퓰리즘은 뒤편길에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도기의 재정은 급속히 증가한 채무와 자본계정의 완전한 자유화와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⁶⁾에 의해 유치된 단기 투기자본에 의해 충당될 것이다.

집진주의는 키르츠네르주의의 경제적 유산 덕분에 가능했다. 크리스티나

4) 아르헨티나 최대 규모의 미디어그룹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옮긴이

5) 메르코수르와 EU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1999년에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개방 문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 2010년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2019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최근 2~3년간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옮긴이

6)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래를 의미하는 경제용어. -옮긴이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2기 정부에서 경제 악화가 두드러지긴 했지만⁷⁾ 사실상 모든 지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었다. 바로 일자리와 채무 지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시장을 유지 해준 것은, 마크리 정권 초반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불러일으킨 퇴보적 영향력이 엄청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 바로 그 생명력이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채무가 신(新)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채권 잔치를 불러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문제는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키르츠네르주의 정권의 마지막 몇 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고, 수출은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외화유출은 계속되었다. 이렇듯 경제계획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직면하여 정부는 계획을 재검토했다. 마크리 정부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전년도 평가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을 상실한 실질임금을 개선하겠다고 단언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을 증액시키면서 2017년 10월의 중요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신중히 제안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통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통합되던 전통적인 아르헨티나 우파 정당들과 달리, 마크리주의가 대다수의 기업가와 경영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윤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현실사회를 다루면서 확실한 경력을 쌓아 왔다. 그리고 때때로 아르헨티나 경제조차 가장 기본적인 법들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비정통적인 작은 선회의 결실은 GDP의 소폭 증가(2.9%)⁸⁾, 경미한 임금 회복, 그리고 사회지표들의 개선이었다.

이렇듯 경제적 성과는 대단치 않지만 ‘바꾸자’가 의회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7) Matías Kulfas: *Los tres kirchnerismos*,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17.

8) Martín Kanenguiser: 《La economía creció 2,9% en 2017, según las estimaciones del Gobierno》 en La Nación, 18/1/2018.

지지를 재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바꾸자’는 선거에서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들에서, 특히 핵심 지역(zona núcleo)이라 불리는 팜파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 막강한 세력은 대두(大豆) 경제를 자양분 삼아, 파라나(Paraná) 강에 접한 여러 나라의 항구들, 전통적인 대토지, 새로운 밭들, 그리고 농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광범위하고 복잡한 망을 이루고 있다. 대지주와 인부라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거리가 먼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농촌은 농학 엔지니어, 의사, 농기계 정비공, 훈증소독 비행기 조종사들의 땅이다. 이 준지방 신흥중산층은 특히 키르츠네르주의와 대립하며 구축되었는데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루었고, 세계화에 통합된 계층이다.

마크리주의는 정권을 인수하자마자 농축산물 수출시 원천징수를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통화가치 하락과 연동하여, 농촌의 수익성을 크게 높였다. 따라서 선거 시 대두를 재배하는 팜파(pampa sojera)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 놀랍지 않다. 그러나 팜파만이 아니었다. 마크리주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중요한 여러 주(州)에서 페로니즘을 패배시키고,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결정적인 주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에게서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어냈다. 경제상황은 악화되었지만 광범위한 사회 각 계층들은 여당 세력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여당 세력은 물질적 상황을 아르헨티나인들의 정치-선거적 연대로부터 분리시켰다. 페로니즘의 분열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와의 분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아르헨티나 사회는 더 기다리기로, 자신의 인내심을 더 늘이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는 정치가들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계승되는 것이다. 여당 세력이 승리한 지 4개월 후 아르헨티나는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새로운 장(章)에 반신반의하며 참여했다.

‘시장’에 대한 진단

기대하던 투자는 결코 오지 않았다. 국정운영 초기 2년간 투자자들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강해지며 의회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역량을 입증하고 그래서 키르츠네르주의가 회귀할 위험을 정부의 변화의지를 분명히 할 일련의 심원한 개혁들을 이루어내야 했다. 그래서 마크리주의는 선거 이후의 불안을 이용해 논란이 많은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개혁은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 결정방식을 변경했으며, 이는 사실상 퇴직자들의 소득이 감소한다는(따라서 국가 재정이 절약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인기 없는 결정에 대해 치러야 했던 정치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 또한 충분치 않았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 이미 언급했듯이, 마크리주의의 계획은 포퓰리즘의 세월 이후 민간투자 재유치를 통해 경제성장 재개를 가능케 할 여건조성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가 차츰 감소할 것이며, 대외적자는 금융투자와 채무에 좌우될 것이다. 대외적자가 처음에는 상당히 증가하겠지만 경제가 확대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차츰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크리주의의 신중한 점진주의적 유토 피아는 세계화의 효용을 순진하게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마크리의 임기 첫 해 타국가 원수들의 인상적인 내방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난 서구 열강의 지지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치적 지지와 기업가들의 의지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통해 경제를 진작하겠다는 생각은 실현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으로 인해 야기될 것이라 추정된 수출의 비약적 증가도 입증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가 세계에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기본적으로 원자재로 형성되는데-을 고려하면 판매량은 내부 비용보다는 외부 수요에 좌우된다. 화폐가치의 절하는 수출량 증대가 아닌, 수출업자들의 채산성 개선으로 연결되었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재정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결코 완성되지 않은 변화를 위해 비용을 대는 동안 재정 상태가 악화되지만 한 것이다.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GDP 대비 채무의 비중이 어마하게 늘어났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달러도 없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이 변하자, 그때까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달러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이런 실정(實情)이 완전히 드러났다. 2018년 초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결정하자, 국제시장에서 계속 채무를 질 가능성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동시에, 유가 상승은 에너지 균형의 적자를 악화시켰고, 아르헨티나의 상당 부분을 갹당한 가뭄은 수출로 거둔 소득을 감소시켰다.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경제위기는 달러 부족 때문에 폭발했다.

정부의 대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자. 생산 부문 구조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외화부족 문제, 부정적인 외부적 제약 문제를 주기적으로 맞닥뜨린다. 경제가 성장하면 수입은 수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국제수지 적자가 차츰 늘어난다. 불완전한 산업화라는 특징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공장들은 자본재와 외자 도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된다. 아울러, 경제 성장은 곧잘 임금 인상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가 기본적인 재화(식료품, 의복 등)로부터 상위의 복잡한 재화(자동차, 가전제품)로 옮겨간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필요성이 심화되고, 여기에 해외여행이 더해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진다.⁹⁾ 여기에 에너지 균형에서 비롯된 적자와 달러화 저축도 더해야 한다. 기본적인

9) 클라우디오 스칼레타(Claudio Scaletta)의 다음 저서에서 경제 프로그램의 약점에 대한 범지구적인 설명을 보라. *La recaída neoliberal. La insustentabilidad de la economía macrista*, Capital Intelectual, Buenos Aires, 2017.

으로 농축산품 위주로 진행되는 수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외화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정부들은 과도한 화폐 평가절하로 대응하곤 하는데, 이 방안은 주기가 새로 시작될 때까지 수출전선의 균형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2010년부터 지속되었다. 키르츠네르주의는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달러 매입을 제한하고,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이 상황을 억제하려 했다. 반대로 마크리주의는 달러를 유치하고 채무를 짐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지만, 발전모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결국 국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경제 설계가 취약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정부는 아무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상궐을 벗어난 방식으로 대응했다. 처음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경시하다가 나중에 놀라는 식이었다. 달러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은 그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 해결이라는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윤곽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했으나, 이런 상황이 되자 우선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그 후에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로 재임 중이던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Federico Sturzenegger)는 환율을 변동시키겠다고 말했고, 며칠 후 달러 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안 서둘러 외환보유고를 매각해 환율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통화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리는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통화주의 성향을 지닌 정통주의 경제학자 스투르제네거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재무부장관이자 시장의 맥을 짚어 면밀히 조사하는 데 익숙한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¹⁰⁾

환율 폭주-그리고 정부가 보여준 실수-는 옛 유명들을 되살아나게 했다.

10) 2018년 6월 14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된 루이스 카푸토는 2018년 9월 25일 사임했다. -윤건이

경제 흥망은 어떠한 경제 체제에나 존재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내내 눈에 띄게 이상한 원형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왔다. 그 원형은 약 10년마다 국가경제를 황폐케 하는 위기로 변하고, 대개 격렬한 사회적 대립과 정치적 단절을 수반한다. 독재정권을 종식시킨 1982년의 외채위기, 라울 알폰신 대통령을 사임케 하고 예금주들에게서 정기에금을 몰수하기로 한 1989년의 하이퍼인플레이션¹¹⁾, 그리고 은행계좌에 대한 ‘코랄리토(corrallito)’¹²⁾를 포함하며 화폐 태환정책을 폐지토록 한 2001년의 대재앙처럼 말이다.

이러한 “몽상과 환멸의 순환”¹³⁾의 원인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달러를 확보해주는 수출 자원(가령, 칠레에서는 구리)을 보유한 다른 국가나 덜 유럽적인 소비모형을 갖고 있어 수입의 필요를 제한하는 사회에는 없는 경제구조(국제 위기에서 만성적으로 비롯된 외부로부터의 제한)의 문제들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물질적 기반이 역사상 난국과 합쳐져 발전모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칠레의 신자유주의, 브라질의 발전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자유주의-개방주의적 계획을 옹호하는 이들과, 보호 무역주의를 선호하며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이들 간의 만성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아무튼, 그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다른 국가들과 같은 양상의 경제적 긴장, 특히 환율과 관련된 긴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 그리고 부동산과 건설 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달러화(化), 금융 기회를 이용하려는 경제 행위자들의 민첩함, 기업계의 단기성과주의, 통화 팽창적 경향은 항상 경제해야할

11) 1989년 12월 카를로스 메넨 정권 때 제정한 경제계획인 ‘보넥스 플랜(Plan Bonex)’을 가리킨다. 보넥스 플랜은 정기에금 가입자들에게 예금 지급을 불이행함으로써 달러 매입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했다. -울긴이

12) बैं크 런을 막고자 아르헨티나 정부가 12개월 동안 모든 은행계좌를 동결하기로 한 조치를 가리키는 용어. -울긴이

13) Pablo Gerchunoff y Lucas Llach: *El ciclo de la ilusión y el desencanto*, Paidós, Buenos Aires, 2018.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몇몇 특징이다. 이런 사회에서 달러의 가치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위기를 측정하는 온도계다.¹⁴⁾

다시 경기(景氣) 이야기를 계속하자. 폐소화의 화폐 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하는 것 같았다. 2018년 초에는 1달러에 18페소였던 화폐 가치가 지금은 24페소에 달한다.¹⁵⁾ 마크리는 재정의 수도꼭지를 잠근 채 절박한 결단을 내렸다.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더욱 큰 혼란을 막고자 필요한 달러를 입수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IMF와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3주간 신속하게 초기 처리과정을 거친 후 정부는 IMF와의 예비(stand-by) 조인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아르헨티나에 총 5백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유했다. 정부는 이를 대성공, 즉 주요 강대국들로부터의 신뢰의 표시로 부각시키고 싶었지만,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그 결정은 과반수에 의해 거부되었으며¹⁶⁾ 무능함과 굴복의 발로로 여겨졌다. IMF와 26개의 합의를 체결한 역사를¹⁷⁾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인들은 이 기구의 차관이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정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경우, 재정적자가 협약 이전의 수치인 2.5%에서 IMF와 협상된 1.3%로 크게 감소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0억 달러 감소한 폭이다.

14) Alejandro Grimson: 《La cultura de la crisis》 en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Cono Sur No 228, 6/2018.

15) 이는 이 글이 쓰인 2018년 7~8월 이전의 수치로, 2019년 3월 현재 미화 1달러는 41페소다. -옴긴이

16) 《Encuesta revela fuerte rechazo a la decisión de volver al Fondo Monetario》 en *Economía*, 10/5/2018.

17) 국제통화기금과 아르헨티나는 1958년 급진주의자인 아르투로 프론디지(Arturo Frondizi) 정권 때 첫 합의를 체결한 후 2003년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 정권까지 약 60년간 총 26개의 합의를 체결했다. -옴긴이

어려운 재선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비해 화폐가치가 60% 절하되었고, 외환보유고는 1백 50억 달러로 감소했다.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5%에서 30%로 올랐고, 2018년 경제성장률은 1% 미만일 것으로 예측된다.¹⁸⁾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엉망이 된 경제를 개편할 것으로 기대되던 마크리 정부는 완전히 무능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여러 변수를 차츰 정상화라고 기대되던 점진주의가 이제는 IMF와 합의한 조정안을 지지층의 결속을 더욱 침식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도전에 의해 대체되었다.

연금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지출의 절반가량은 법에 의해 물가와 연동되어 있어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구성요소인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사회적 포용의 한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적자 감소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묘하게도 이런 긴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마크리주의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최후의 보루였던 농촌이다. 사실, 최근 3개월간 화폐가치가 가공(可憐)할 만큼 떨어지자 농축산물 수출업자들의 수익성이 순간적으로 높아졌고, 이들은 자기 이익이 하루 만에 어떻게 아르헨티나 페소로 60%나 증가하는지를 보았다. 반면,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폭은 훨씬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리 정부는 키르츠네르 집권기간 동안에 행한 것보다 1% 더 적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IMF와 협상한 목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었고, 심지어 팽창 정책을 생각해볼 여지를 남길 수도 있었다. 이를 권고한 것은 바로 IMF 당국이었다. 그러나 일련의 설명과 부정 그리고 선전 후에,

18) 2018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47.6%로, 이는 지난 27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옮긴이

마크리 본인이 그 생각을 철회했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정제된 채 스스로 만든 덫에서 걸려 있다. 정부는 적자와 관련된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비용 삭감을 탐색할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 울화가 치밀고 정치적으로 몹시 피곤한 상황에서, 비용 삭감은 사회적·정치적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공직자, 지방정부, 국립대학, 문화 및 과학 기금은 이런 영향을 특히 더 많이 받은 영역이다. 단지 사회복지 계획들만 살아남았는데, 이는 마크리주의가 90년대의 경험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이다. 즉, 키르츠네르 정권 때 구축되고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연장되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의 틀이 없으면, 마크리 정부는 사회적 평화와 정치적 통치력을 위협하는 폭발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다른 글에서 지적했듯이¹⁹⁾, 최저 생활을 하는 광범위한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발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마크리 '신(新)우파(nueva derecha)'의 특징적인 면 중 하나다.

마크리주의는 2019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마크리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테지만, 몇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확실히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고 페로니즘은 계속 분열되어 있지만, 정부는 경제를 재건하고 지난 수 개월간의 불경기와 사회적 악화를 극복하여 2019년 중반에는 아주 미미할지라도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어려운 도전 앞에 놓여 있다.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며 이데올로기 색채를 배제한 지도자라고 선언한 마크리는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약속 외에는 이렇다 할 큰 변화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낙태를 합법화하고자 입법 처리를 준비하겠다는 결정이 조심스럽게, 거의 불명예스러워하는 듯이 발표되었다. 낙태 합법화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를 포함한 모든 전직 대통령이

19) 다음 도서를 참조하라. J. Natanson: *¿Por qué? La rápida agonía de la Argentina kirchnerista y la brutal eficacia de una nueva derecha*,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18.

제동을 건 사안이다. 마크리는 국회 개회사에서 국회가 곧 이 안전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마크리 정부의 장관들은 상반된 견해들을 드러냈고, 여당을 지지하는 진영은 결국 분열된 채 의결을 마쳤다.

공화당 쇄신에 대한 논의와 부패에 대한 비판이 차츰 효력을 상실하는 사이,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되살릴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영웅적 업적에 얽매이지 않는 채, 반(反)서사시적인 서사시의 개척자로서 마크리주의는 존재감이 덜한 대통령을 추구했다. 이는 건전한 경제, 성장하는 경제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마침내 포퓰리즘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난 개인과 기업이 능력을 발휘할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이미 수차례 그랬듯이 이런 계획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달러 가격이었다.

조혜진 옮김